

# 장 자크 루소

## 1. 자연 상태

### 1) 초기 자연상태

인간은 본래 자유롭고 평등하며 선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인간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것은 자기 자신이며, 그들에게 최고의 법 또한 자기 보존에 힘쓰는 것입니다.

즉, 태어나길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할 의무가 있으며, 개개인은 스스로의 주인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게, 선하게 태어난다.

인간의 최고의 법은 자기보존에 힘쓰는 것이며, 인간이 최대 관심도 자기에 대한 관심이다.

그렇기에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다.

### 2) 불평등의 심화

시간이 흘러 개개인은 자신의 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소유는 빈부를 형성하며, 빈부는 불평등을 부릅니다.

이렇게 형성된 불평등은 루소가 말하길,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이 불평등은 재산의 빈과 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강함과 약함, 즉 힘의 차이에도 작용합니다.

강자는 약자를 힘으로 굴복시켜 권력을 얻고, 약자는 강자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가족 사회를 이루고 살던 그들은 시간이 흘러 이들에게 소유의 개념이 생겨났다.

그러나 소유는 불평등을 일으킨다. 부는 불평등에서 온다. 악의 최초의 원천은 불평등이다.

그러나 인간은 '본성적으로' 정당한 권력에 대해서만 복종의 의무를 가집니다.

그렇기에 강자에게 진정으로 복종하지 않으며, 강자의 권력은 약해진다면 언제든지 전복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가 된 사람이나 정복된 신민은, 인간 본성에 의해 복종하도록 강요받는 동안에만 복종할 뿐, 지배자들에 대한 어떤 의무도 지지 않는다.

### 3) 사회 계약의 발단

이렇게 불평등이 가속화되었을 때쯤, 인간은 생존의 위협을 느낍니다.

자신 혼자의 힘만으로는 살아남기도, 재산을 지키기도 어렵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각자의 힘을 하나로 모아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니다.

루소의 표현을 빌리자면,

'구성원 모두가 전체와 결합하면서도,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하며 이전처럼 자유롭게 사는 것'.

그리고 이 해결책이 바로 사회계약입니다.

즉, 사회계약의 목적은 불평등한 힘의 구조 아래 잊혀진, 가장 근원적인 인간 본성인 '자기 보존'을 다시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 자기 보존을 해치는 장애물의 저항력이 각 개인의 생존을 유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힘을 능가하는 시점에 도달하게 된다.

인간은 존속을 위해 해결책을 갈구하게 되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사람이 힘을 결집시켜 저항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의 총량을 형성하고, 그 힘을 한 가지 동기로 움직여 한꺼번에 작동하게 만드는 것" 즉 사회 계약을 찾아냈다.

## 2. 사회 계약

### 1) 계약의 내용

사회 계약은 단순히 힘을 합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약속입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들은 모두 자신의 모든 신체와 권리를 공동체에 양도합니다. 이때 모두에게 주어진 조건은 동등하며, 모두가 지는 부담은 균등해야만 합니다. 이 '균등', 즉 모두가 같은 부담을 진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성원 모두는 각자가 자신의 모든 권리와 함께 공동체에 양도한다.

이때 모두에게 주어진 조건은 동등하며, 그 누구도 타인에게 더 큰 부담을 지게 하는 데에 관심이 없다.

### 2) 계약의 결과

계약이 성립되면 계약 당사자 모두는 계약을 맺으며 잃었던 권리와 동등한 권리를 다시 얻습니다. 또한 모두는 자신이 가진 것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힘인 주권을 얻게 됩니다.

계약 성립 이후, 각자는 계약 시 상실한 모든 것과 동등한 것을 얻으며,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킬 더 큰 힘, 주권을 얻게 된다.

### 3) 일반의지

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들의 공익을 위하는 의지는 하나로 통합됩니다.

이렇게 통합된 의지를 '일반의지'라 합니다.

일반의지는 항상 사회의 공공선을 지향하고, 사회를 이끄는 최고의 기준이 됩니다.

개인의 의지로부터 창출된 이 정신적 집합체는 '공동체적 인격', '공적 인격'으로도 불리우며 이는 국가를 이끄는 정신(인격)이 됩니다.

일반 의지는 법을 제정하거나, 투표를 통해서 행사되고 표현됩니다.

또한 우리 각자는 자신의 신체와 모든 능력을 공통으로 일반 의지의 최고 지휘 아래 두며, 우리는 전체에서 분리될 수 없는, 부분인 각 성원을 한 몸으로 받아들인다.

그리하여 개인적 의지 대신 정신적 집합체를 창출하게 되며, 이 집합체는 공동체적 자아, 즉 공적 인격을 가지게 된다.

### 4) 자연적 · 사회적 자유

자연 상태에서의 자유는 행동의 제약이 없는 자유, Freedom에 대응합니다.

이를 자연적 자유라 하고, 자연적 자유는 사회 계약을 통해 소실됩니다.

계약 후에도 지 마음대로 한다면 계약을 맺을 이유가 없겠죠. 남들한테도 위험하고.

그러나 계약이 성립되면 잃었던 자유를 다시 얻게 됩니다.

다시 얻게 된 자유는 사회의 질서를 따르는 조건 하에 보장하는 사회적 자유이며, Liberty에 대응합니다. 이 질서와 통제는 일반의지가 창출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따른다는 데에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구성원 모두는 계약 시 일반의지를 만드는 데에 일조했기 때문에, 일반의지를 따르는 것은 자기 자신을 따르는 것과도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일반의지는 계약 당사자들의 사회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한 데 모은 공동체적 인격입니다. 즉 일반의지에 나 자신의 의지 또한 통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의지에 따르는 것은,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구요.

각자가 전체와 결합돼어 있으면서도 자신에게만 복종하고, 그 사회 내부라면 계약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된다.

## 5) 짜투리 용어 (몰라도 됨)

개별의지: 사적인 이익을 바라는 의지

인민: 공동체 구성원 전체를 부를 때

전체의지: 개별의지의 총합

시민: 주권자로써 정치에 참여할 때

일반의지: 공공선을 지향하고 사적인 욕망이 없는 의지

신민: 국가의 법(일반의지)에 복종할 때

## 3. 주권

이 주권은 사회 계약을 통해 탄생한 인민 전체의 절대적인 권력입니다.

즉, 개인의 힘이라기보다는, 모든 공공선을 바라는 일반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주권은 항상 공공선, 사회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만 쓰일 수 있습니다.

주권을 가진 이들은 계약을 맺은 모두이며, 이들의 주권은 사회 계약이 부여한 절대적인 권리이다.

그래서 주권은 양도와 분할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사회 계약의 취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주권은 절대로 양도되거나 분할될 수 없다.

계약 과정을 되짚어봅시다.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개인들은 자기 보존을 위해 계약을 맺기로 합니다.

계약 당시 개인은 공동체에 권리를 양도한다는 균등한 부담을 졌습니다.

계약 성립 이후 일반의지(공공선)이 형성되며, 일반의지는 주권을 통해 행사됩니다.

주권은 사회에 이득을 끼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사익을 위해 타인의 주권을 빼앗는 것은 힘의 차이를 불러옵니다. 이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 강자에 의한 복종으로부터 빚어진 불평등을 벗어나고자 했던 그 자연상태가 되풀이됩니다.

2) 공공선을 표현하는 주권이, 개인의 사익을 표현하게 됩니다.

두 가지 문제 모두 사회 계약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정리하면, 자연 상태의 문제점을 되풀이하고, 개인이 모두를 대변하는 힘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주권은 양도되거나 분할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시를 들면, 대통령 선거 때 타 정당 지지자가 내 투표권을 뺏어서 타 정당 후보를 2번 뽑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부당하고 황당하죠? 언론사에 제보하면 기사가 나겠죠?

'나 몰래 내 이름으로 투표한 반대편 지지자.. 내 주권은 어디로?' 같은 헤드라인으로.

주권의 분할 자체가, 사회 계약의 목적, 일반의지에 어긋난다.

타인에게 더 큰 부담을 주는 그 모든 행위는 일반 행위에 대해 어긋나기 때문이다.

### 3-1. 사형제 정당화

루소는 사회 방위의 관점에서 사형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계약을 위반하거나 파괴한 자는 공동체를 위협하기 때문에 사형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사회 계약은 자기 보존을 위해 맺은 계약이고, 계약 당사자는 모두 이 계약을 지킬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권리를 짓밟는다면, 예를 들어 살인을 저지르거나, 누군가를 힘으로 굴복시킨다면 이는 명백히 일반 의지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일반 의지에 반하는 행위는 사회 계약의 파기를 의미하며, 이로써 행위자는 공동체의 일원이 아닌 '적'으로 간주됩니다.

그리하여 계약 위반자는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잃고, 공동체는 그에 대하여 전쟁을 벌이듯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그는 인민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된다. 이는 시민이 국가에 대해 벌이는 전쟁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이 사형뿐만인 것은 아닙니다.

살인범이 살아있을지라도 사회를 위협하지 않는다면, 살인범을 공동체 외부로 추방하는 방식으로 사회 방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살인범에 대한 사형 또는 엄벌의 목적이, 칸트처럼 동해보복 원리나 인격적 대우의 실현도, 벤담이나 베카리아처럼 공리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 아닌, 단지 공동체 내부의 위험 요소를 제거해 공동체를 안전하게 만드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 4. 저항권

시민들은 공동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주권의 대리인으로서 정부를 선택합니다.

정부는 효율성을 위해 여러 개의 부서로 나뉘는데. 이는 주권의 분할이 아니라 주권이 힘을 쓸 곳을 나누는 것입니다.

정부는 주권의 대리인인 만큼, 운영도 일반 의지에 근거해야만 합니다.

즉 절대로 공익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없다는 겁니다.

국가 운영을 위해 공동체는 주권의 대리인으로서 정부를 선택한다.

정부는 효율성을 위해 여러 개의 부서가 나뉜다.

그러나 정부가 일반 의지를 벗어나 사익을 추구하거나, 권력을 찬탈하여 주권자의 권리가 침해하는 것 또한 범죄와 마찬가지로 사회 계약 자체의 파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은 정부에 복종할 의무가 사라지고, 시민들은 빼앗긴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정부에 저항하고 반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일반 의지에서 벗어나 사익을 추구하거나, 권력을 찬탈하여 주권자의 권리가 침해하는 것은 사회 계약 자체의 파기를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은 정부에 복종할 의무가 사라지고, 자신의 권리가 되찾기 위해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

## 5. 사회 계약으로 맺어진 공동체에서의 입법

### 1) 입법자

24학년도 6평에 선지로 나온 '입법자'입니다.

당시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입법자에게만 형벌권이 있음을 간과한다"가 루소의 입장을 대변하는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무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입법자는 형벌권이 없습니다.

입법자는 예수같은 겁니다. 한 사회에 딱 한 번만 왔다가 지 할 일만 하고 떠나서는 안 돌아와요.  
하는 일은 국가의 기본법을 만드는 겁니다.

자세하게 말하면, 입법자는 공동체가 맺어진 후에 등장합니다.

막 생긴 공동체에는 법이 없을테니까, 법을 만들어야겠죠?

그런데 그 법은 일반의지를 명문화하고, 특정인의 사익을 위한 법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일반의지를 명문화한 것이 법인 만큼, 어떤 구성원에게도 치우치면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자들이 아니라, 공동체 외부의 인물이어야 합니다.

외국인이면서도/그 사회의 성격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으며/지성을 갖추고, 지혜로운/ 사람이 입법자가 됩니다.

그리고 기본법을 발의하고, 공동체가 허락(일반의지가 허락)해서 입법되면 그 사회를 떠납니다.

저도 사회계약론 잘 읽다가 여기서 좀 깼네요. 어짜피 가상의 개념인 만큼 그냥 받아들이시면 됨.

### 2) 이후의 법 제정

입법자가 참여한 기본법 제정 이후에는 **법 제정에 주권자, 즉 인민 전체가 그 과정에 참여합니다.**

일반의지의 명문화인 법에 주권자의 영향이 없을 수 없겠죠.

모두는 제안된 법안에 대한 **투표를 하며 일반의지를 행사하고, 투표 결과로 해당 법안의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어떠한 법안도 주권자의 동의 없이는 법이 될 수 없습니다.**

# 기출 선지 - 형벌

[2014학년도 수능]

모든 인간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라도 자신의 생명을 보전하려고 한다. 그 누구도 살해당하지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는 자신의 생명 보전을 목적으로 삼는 계약에 동의한다. 그래서 각자는 자신을 공동체에 양도하여 일반의지의 감독 아래에 둔다.

[2015학년도 수능]

타인의 희생으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은 타인을 위해 자신도 희생해야 한다는 데 동의해야 한다. 그는 일반의지로부터 규정된 법을 따라야 한다.

[2016학년도 6평]

사회 계약의 목적은 계약자의 생명 보존에 있다. 이를 위해 각자는 모든 것을 공동체에 양도함으로써 일반의지의 감독하에 둔다. 살인을 저질러 계약을 위반한 자는 공공의 적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ㄱ. 사형은 사회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다.

- 사회 계약의 목적이, 불평등으로 인해 개인의 힘으로는 목숨과 재산을 지키기 어려워진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함이었으므로.

[2018학년도 9평]

법은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일반 의지를 반영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쓸 권리を持つ습니다. 사회 계약을 파괴한 살인범은 도덕적 인격이 아닌 공중의 적으로 사형에 처해져야 합니다.

[2018학년도 수능]

시민의 생명 보존이 사회 계약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신체와 모든 능력은 공동의 것이며, 이것은 일반의지의 최고 감독하에 있는 것입니다. 시민 사회에서 타인의 생명을 희생시킨 사람은 자신의 생명도 포기해야 합니다.

[2020학년도 9평]

국가의 목적은 계약자들의 생명 보전에 있고, 사형 제도는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우리의 신체와 능력은 일반 의지의 최고 감독 하에 있다.

[2021학년도 9평]

누구나 일반 의지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는 국가에 의해 강제를 당하게 된다.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생명 보존을 위해 존재하며, 사형도 같은 관점에서 다뤄진다.

① 살인범은 자신이 사회 구성원이 아님(계약을 어김)을 스스로 입증한 자이다.

④ 범죄에 상응하는 형벌의 부과는 사회 계약에 근거해야 한다.

⑤ 형벌은 정의의 기초가 되는 원리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

[2021학년도 수능]

사형은 죄인을 시민이 아닌 적으로서 처벌하는 것이다. 그 판결은 그가 사회 계약을 파기하여 이미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증명이자 선언이다.

② 형벌은 국가 존립을 위한 수단으로 집행될 수 있다.

③ 사회 계약은 살인범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근거이다.

## [2022학년도 6평]

법은 사회적 결합의 계약 조건이기 때문에, 법에 복종하는 시민들이 법의 제정자가 되어야 한다. 법은 일반 의지에 의해 행사되어야 한다.

- ⑤ 계약자의 생명 보존을 위해 사형제는 존치되어야 한다.

## [2022학년도 9평]

사형은 죄인을 적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재판과 판결은 그가 더 이상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증명이자 선고이다.

## [2022학년도 수능]

사회 계약은 계약자의 생명 보존이 목적으로, 타인의 희생으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자(살인범)는 타인을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도 생명을 희생해야 한다.

- ㄹ. 계약자의 생명은 다른 계약자의 생명을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조건부적으로 보장된다.

## [2023학년도 수능]

법은 일반 의지의 행위에 속하고, 의지의 보편성과 대상의 보편성을 결합하고 있다. 법을 위반한 살인범은 자기 보존을 목적으로 한 사회 계약을 파기한 자이다.

- ③ 살인범은 더 이상 도덕적 인격으로 간주될 수 없다.

- 살인범은 사회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더 이상 도덕적 인격으로서 대우받지 못하며 단순히 계약의 위반자로 다루어진다.

- ④ 모든 형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집행되어야 한다.

- 형벌 또한 일반 의지에 의한 행위이고, 일반 의지는 공익을 향한다. 살인범이 사형을 당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사회에 이익이 되기 때문.

## ★★[2024학년도 6평]★★

살인자는 사회의 법을 위반했으므로 그 행위로 인해 조국에 대한 반역자가 되어 버린다. 그는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국가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 ④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입법자에게만 형벌권이 있음을 간과한다.

## [2024학년도 수능]

법을 제정하는 행위는 일반 의지의 행사이다. 위법 행위와 형벌의 관계에 따라 형법이 제정된다. 국가에 맞서 전쟁을 선포한 죄인을 사형을 처할 때 우리는 그를 국가의 적으로서 처벌하는 것이다.

- ㄷ. 모든 형벌은 범죄자를 시민의 일원이 아닌, 국가의 적으로서 처벌한다.

## [2025학년도 6평]

시민은 계약을 통해 자기 생명을 처분하기보다 보존하려고 궁리한다. 그러므로 살인자는 시민이 아닌 국가의 적으로 간주되어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 [2025학년도 수능]

법은 공동 이익을 지향하는 일반 의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법을 어긴 범죄자는 더 이상 조국의 구성원이 아니고 조국과 전쟁을 벌이는 자이다.

# 기출 선지 -사회 계약

[2023학년도 9평]

국가가 형성될 때 개개인은 자신을 그 모든 권리와 함께 공동체 전체에 전면 양도한다. 이를 일반 의지의 지배 아래 둔 개인은 자기 자신에게만 복종한다.

④ 국가 구성원은 법을 따르는 동시에 제정하는 자임을 간과한다.

[2026학년도 9평]

우리 모두는 자신의 인격을 일반 의지의 지도 아래 둔다. 우리는 단체로서, 각 구성원을 국가의 분리 불 가능한 부분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자연적 자유를 내려놓고 도덕적 자유를 확보한다.